

영화 '조금 불편한 그다지 불행하지 않은' 만드는 시각장애인 감독 임덕윤씨

# “도전·열정 있으면 불행은 없습니다”

## 보성서 배우·제작자로 1인 3역 맡아 이달말 편집 마치고 단편영화제 출품

“레디, 액션!”  
양쪽 눈을 잃은 40대 1급 시각장애인이 장애로 접었던 영화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단편 영화 제작에 나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보성에서 요양하고 있는 임덕윤(41)씨. 임씨는 지난달 24일부터 보성 일대에서 감독으로 배우로 제작자로 1인 3역하며 영화 '조금 불편한 그다지 불행하지 않은(가제)'을 촬영하고 있다.  
자신의 도전에 대해 “검은 스크린에 하얀 영상을 그리고 있다”고 말하는 임씨는 “이번 영화제작으로 제3의 삶이 시작됐다”며 “영화에 나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희망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광주영상정보대학 영상편집과를 졸업하고 영화 연출부에서 일하며 감독의 꿈을 키워오던 임씨는 2003년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다. 또 요양중 만성신부전증까지 겹쳐 일주일에 세 차례씩 혈액투석을 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임씨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한 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초급강좌를 받으면서부터였다. 앞이 안 보여도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게 했다.  
힘을 내 2007년 그토록 하고 싶었던 영화에 도전했다. 그러나 촬영이 진행되던 중 건강이 악화됐고 여러 사정으로 중단해야 했다.  
이번 영화를 위해 임씨의 지인들이 다시 뭉쳤

다. 영화를 하면서 알게 된 김훈희(41·촬영감독), 한상훈(40·스텝), 김승철(41·미니어처 작업), 전성아(28·배우)씨 등의 도움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임씨는 현지 촬영이 끝나면 3월 말 편집 작업을 거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같은 곳에 출품할 계획이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작업이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영화와 보람과 기쁨이 크다. 하지만 영화 제작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작업인 만큼 많은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당장 촬영된 영화를 편집하고 CG 작업을 할 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실정이다.  
“제작년 작업은 영화계쪽 아는 이들에게만 너무 의탁해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현지 촬영 해 이 작품을 들고다니며 파트너를 구하고 도움을 청할 계획입니다.”  
영화를 제작해 상영하는게 임씨의 희망이지만 그에게는 이보다 더 큰 바람이 있다.  
임씨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장애인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임씨의 마음속에 있는 극장에선, 그의 데뷔작 '조금 불편한...'가 이미 개봉 준비를 마친 듯했다. 따뜻한 일정에 다소 지쳐 보였지만 연기하는 그의 모습에 열정과 웃음이 가득했다. 문의 019-294-0229.  
/보성=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달 24일 시각장애인 영화감독 임덕윤씨가 보성 문덕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병원에서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 /위리장기자 jrwi@kwangju.co.kr

## “태백산맥은 통일에 대한 문학적 응답”

### 완간 20년만에 200쇄 돌파 조정래씨



물고 가는지 정치하는 자들에게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뜻에 의해 6·15 선언이 나왔고 10·4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오늘과 같은 협약한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태백산맥”이 200쇄까지 이르는 동안 작가는 집필하면서는 물론 발표 이후에도 여러 고초를 겪었다. 1994년 ‘국군폭력연방’ 등 8개 단체가 작가와 출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후 검찰이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한편 조씨는 ‘태백산맥’ 이외에도 1996년 완간한 ‘아리랑’(전12권), 2001년 완간한 ‘한강’(전10권) 등까지 세 편의 대하소설을 출간했다. 이 중 ‘아리랑’도 2007년 100쇄를 돌파했고 ‘한강’도 70쇄 가까이 나와 세 작품의 합계는 375쇄 가량이 된다. 이는 모두 시리즈 첫 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전체 32권의 책을 모두 각각 집계해 합칠 경우 통째로 2천800쇄 이상인 것으로 출판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판매부수로 계산하면 ‘태백산맥’ 700만 부, ‘아리랑’이 340만 부, ‘한강’이 230만 부 가량이며,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양장본, 세트본 판매 부수까지 더할 경우 총 1천300만 부를 넘어선다.  
이 작품들을 통해 작가가 거둔 인세 수익도 상당하다. ‘태백산맥’의 경우 1994년까지 한길사에서 권당 5천-5천500원으로 총 350만 부 가량이 팔리고, 이후 해남출판사에서 권당 9천500원에 350만 부 가량이 팔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인세는 50여억원을 훌쩍 넘겼다. 여기에 ‘아리랑’과 ‘한강’을 통한 인세 수익과 ‘태백산맥’, ‘아리랑’의 해외 출간 수익까지 더할 경우 이 세 작품을 통한 작가의 인세 수익은 100여억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연뉴스

“태백산맥”은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숙원이자 비원인 통일을 이룰지에 대한 문학적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날 남북 상황을 보면 암울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남북한 모두 한반적 물러나 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정래(66)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전 10권, 해남 펴냄)이 완간 20년 만에 통째로 200쇄를 돌파했다. 한국문학 다경본 중에서는 첫 200쇄 돌파, 10권 합쳐 7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이를 기념해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씨는 “처음 ‘태백산맥’을 쓸 때는 이렇게 엄청난 독자층의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오늘의 기쁨과 보람은 오로지 독자들이 만들어준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조씨는 그러나 20여년 전 소설 속에서 그 원형을 보여줬던 민족통일이 여전히 요원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미 구 소련, 중국, 베트남과도 수교했으면서도 왜 같은 민족인 북한과는 대립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백척간두로

## ‘캣츠’ 옥주현 대학 강단 선다

### 동서울대학 겸임 교수 임용



어워즈에서 ‘시카고’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옥주현은 “아직 교수라는 이름이 낯설고 나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며 “하지만 11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캣츠’의 지방 공연에 참여 중이며 여름 정규 음반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뉴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옥주현(29)이 동서울대학 공연예술학부 겸임 교수로 임용된다.  
2일 옥주현의 소속사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옥주현은 3월부터 가창실기, 뮤지컬 등 2과목을 강의한다.  
1998년 여성그룹 핑클로 데뷔한 옥주현은 2003년부터 솔로로 데뷔해 3집까지 발표했다.  
또 2005년부터 ‘아이다’, ‘시카고’, ‘캣츠’ 등의 뮤지컬에 출연했고 ‘제2회 더 뮤지컬



이철환 대학원장 박창수 대학원장 정성창 대학원장 오희균 대학원장 김미희 학장

### 전남대 대학원장 등 인사

전남대는 2일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장에 법학과 이철환 교수를 임명하는 등 대학원 4곳의 원장을 임명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의학전문대학원장에는 의학과 박창수 교수가, 경영전문대학원장에는 정성창 교수(경영학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에 오희균 교수(치의학과)가 임명됐다.  
생활과학대학장에는 생활환경복지학과 김미희 교수가 선출돼 이 날자로 임명됐다.  
▲기획처 기획조정과장 김명구 서기관 ▲사무국 경리과장 김은희 서기관 ▲교무처 교육지원과장 고희석 서기관 ▲행정본부장 이용재 서기관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장 이춘신 서기관 ▲산학연구처 연구지원과장 민병재 행정사무관 ▲제4행정실 백종국 행정사무관 /재희총기자 chae@kwangju.co.kr

### 유네스코 아태의원연맹 부의장

민중당 김영진(광주 서울) 의원은 2일 ‘유네스코 아태지역교육 국회의의원연맹’ 초대 부의장에 취임했다.

###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에

이계만 조선대 정책대학원장이 한국정책과학학회 차기회장에 선출돼 2010년 회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 인사

◇목포대  
▲인문대학장 김영목 ▲사회과학대학장 손규원 ▲자연과학대학장 허원영 ▲공과대학장 윤환용 ▲경영대학장 김정권 ▲생활과학에세대학장 국중효 ▲경영행정대학원장 김신규 ▲기획협력처장 이성로 ▲산학

### 협력단장 박종환 ▲교양과정부장 양경모 ▲도서관장 강주혁 ▲학생생활관장 박민호 ▲평생교육원장 양승주 ▲공통실습실습관장 김재만

### 내방

▲김승희씨(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동창·동문회

▲강진 일구삼상회(회장 윤봉현) 정기총회=3일(화) 오후 6시30분 신우식당. 011-629-5410.  
▲동심회 개최(회장 김재열)=3일(화) 오후6시 맛가식당. 062-523-5122.  
▲광주사대부중 제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4일(수) 오후 6시 금남로 유명회관. 062-512-5574, 511-0383.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양정운) 월례회=5일(목) 오후 6시 금강산 식당. 062-224-0808.  
▲재광 목포공고 정기총회(회장 조광수)=6일(금) 오후 6시30분 상록회관 4층. 010-3641-3850.

### 종친회

▲진주강씨 광주전남 총회(회장

강평원)=7일(토) 오전 11시 광주향교 유림회관. 062-228-3368.

### 알림

▲미소 경희 한의원 개원=5일 목포시 산정동 178-12 산정동 보건소 사거리·원장 신재성(전 서울 동의가족한의원장·목포고 27회). 061-273-0776, 0778.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062-363-2240.

### 모집

▲극단 ‘청춘’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연극을 하고 싶은 신체 정신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모집 분야는 배우·기획·스텝분야. 모집기간

은 10일 까지. 062-430-5257, 010-7205-0500.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노래교실(화·수·오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 4시). 062-410-5000.  
▲제1기 예자·다도반 모집=생활예절, 우리웃 바로입기, 인사의 종류와 하는법, 차생활의 입문 등을 배우고 싶으신 분. 교육일시 3월10일(4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3월9일까지 선착순 마감. 062-526-3325.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색소폰 기초 및 중급 과정 모집=모집기간 27일~3월5일(1학기 과정) 인원 15명. 062-520-2516, 011-603-3959.  
▲광주 YWCA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생 모집=모집 기간 2월23

일~3월4일(2주과정), 55세 미만 여성(주부 및 고령자), 모집인원 20명, 무료. 062-511-3336~7, 062-526-3338~9.  
▲사랑의 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 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검정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체교정 자격증반 모집=3월3일까지 평생교육학과로 신청. 016-9886-5900.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거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다인 안악회 회원 모집=정기적으로 산에 오르실분 모집. 011-604-7482

(前 현대정보기술 상무)·연중(능률교육)·강중(광양제철)·선숙·미혜씨 부친상=발인 4일(수) 오전 7시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김준순씨 별세 심재규(파레스 관광호텔 회장)·수길(송광교통)·재현(제주과원)씨 모친상=발인 4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고효성씨 별세 신용철·인순·용희씨 모친상=발인 3일(화) 학동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385.  
▲전귀임씨 별세 정성근(조각가)·연철(도로교통공단)씨 모친상=발인 3일(화) 송정 장례식장 2호실. 062-941-7101.

▲나관순씨 별세 오현주(건설업)·현택(개인택시)·현준(송광 관광버스)·현순·현숙·삼순씨 모친상 방봉현(나이나 가스렌지)·신일봉(중구 무역업)·구기만(광양 삼계탕)씨 빙모상=발인 3일(화) 송정장례식장 3호실. 062-941-7103.  
▲정인상씨 별세 병학·병양·병간·금례·순임·삼례·금자씨 부친상=발인 3일(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이상근씨 별세 창용·지현·혜선씨 부친상=발인 3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전성숙씨 별세 최명신·명호·효은·상은씨 모친상=발인 4일(수) 학동금호장례식장 501호. 062-227-4314.

대한민국 최초 프리드 선진국형 정화시스템 현대중합상조

1688-3740